

# 은빛 기수에 내려앉은 미녀들 노즈아트(Nose Art)

노즈아트란 무엇인가? 왜 노즈아트의 소재로 여체가 주로 등장하는가? 누가 노즈아트를 그리는가?  
왜 기수에 그리는가? 2차대전 당시 사용되었던 항공기들의 복원기를 중심으로 노즈아트에 대해 살펴본다.

## 노즈아트란?

노즈아트(Nose Art)란 말그대로 항공기의 기수부분에 그려지는 그림을 말한다. 항공기가 만들어진 이래로 특히 전쟁에 사용되어온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제식도장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군용 공식도장을 기체에 하게 되었고 그 위에 항공기의 소속식별을 위하여 국적표지, 부대코드 및 소속 식별기호 등을 표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식도장 이외에도 여러가지 특징있는 그림을 항공기에 그려넣곤 했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비교적 제식도장이 체계화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르러 활발히 눈에 띄게 된다.

2차대전 당시의 항공기들 중 다수는 대개 기수에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넣음으로써 '노즈아트(Nose Art)'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노즈아트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고대 로마시대의 전사들이 자신의 전차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거나 중세의 기사들이 자신들의 말과 마구 및 무구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2차대전중에 시작되어 당시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간혹 노즈아트는 엠블럼(emblem)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소

재를 사용하여 그림이나 문양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노즈아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엠블럼은 대개 도안화되어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부대 및 단위대를 나타내기 위해 부대별로 통일되어 소속 항공기들에 공통으로 그려넣어지므로, 제각기 다른 조종사 및 정비사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노즈아트와는 다르다. 노즈아트는 당시 전세계 공군 및 육군·해군 항공대의 항공기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두드러진 것은 미 공군(당시 미 육군항공대)이었다.

## 노즈아트의 소재

노즈아트에 애용되는 소재는 각국 공군 및 항공대의 기풍이나 문화 및 정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컸다. 예를 들어 미 공군 이외에는 노즈아트가 활발히 애용되지는 않았으며 소재 또한 달랐다. 미 공군의 경우는 상당히 다채롭고 화려한 노즈아트를 애용했다. 그 소재는 대부분 전라 혹은 반라의 여체였으며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속옷차림의 단정치 못한 차림새의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이러한 그림을 그려넣고 이름(에칭)을 붙여 마스크트화하여 조종사나 정



시범비행에 사용되는 이 P-40기는 2차대전 당시의 미 의용항공대(AVG) 소속기의 특징적인 도장을 하고 있다.

비사 모두 자신의 항공기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기도 했다. 여성의 그림과 함께 써넣곤 하는 이름이나 문구는 상징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것들을 속어로 표현한 것들이 많았지만 예외도 있었다.

여체가 주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남성의 원초적 본능'에 입각해서라고 극단적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그것보다도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 및 문화적 특성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다. 영어권 국가의 문화에서는 배나 비행기, 자동차 등의 '탈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비인칭 지시대명사 이외에도 'She'라는 여성대명사를 사용한다. 단 이것은 '탈 것'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쟁에 임하는 그들이 자신의 항공기에 대한 애착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자그마한 여유나 유머로 이해함이 좋을 듯하다.

여체 이외에도 노즈아트의 소재로써 사물, 동물(주로 독수리, 뱀, 호랑이 등), 식물(꽃,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나뭇잎 등) 등등의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자신의 전의(戰意)를 나타내는 내용과 문구가 표현되기도 했다. 특히 호전적인 분위기의 노즈아트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AVG(미 의용항공대) 소속 P-40 전투기의 기수에 도장되었던 'Shark Mouth(상어의 입)' 모양일 것이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강렬한 인상의 '상어 입'은 비단 미국만이 아닌 각국의 공군 및 항공대에서 즐겨 사용해 온 소재이기도 하다.

노즈아트는 군용기 표준제식도장에 포함된 것도 아니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지나친 내용의 것들은 이따금씩 검열을 피해 삭제되거나 순화시켜 그려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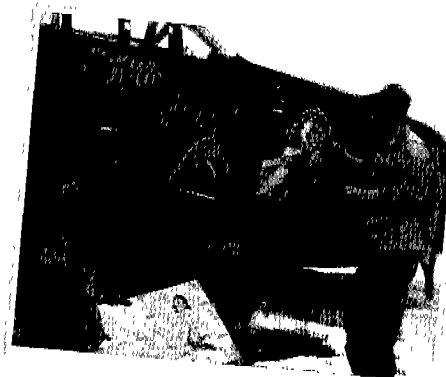
미 공군과는 달리 나치독일 공군의 경우는 프러시아 귀족의 자존심이 지배하는 분위기 가운데, 미 공군의 것과 같은 분위기의 노즈아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대신 미 공군에 비해 조금 더 점잖은 내용의 그림이나 문양이 엠블럼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일부 항공기에서는 자유로운 소재(여체 제외)의 마스코트를 그려넣거나 연인의 이

름을 써넣기도 했다. 현존하는 2차대전 나치독일 공군기 사진이나 자료중에서 항공기의 마스코트로서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오직 1대의 전투기뿐(Gunter Scholtz 대위의 BF-109E), 그것조차도 성숙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어린 여자아이'가 등장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 누가 그리는가

오늘에는 노즈아트만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들도 더러 있고, 때로는 해당 군에서 전문화가들을 초빙하여 그려넣는 경우도 있으나 공식적으로 각 단위대별로 노즈아트만을 전담하는 전문화가가 일일이 배치되어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2차대전 당시에는 노즈아트만을 위해 전문화가를 본국에서 초빙해올 정도의 여유는 없었으므로, 해당 부대내의 그림 솜씨 좋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노즈 아티스트(Nose Artist)'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고 대개 일선 부대의 정비사나 조종사가 직접 정비용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그려넣는 경우가 더 흔했다.

그러므로 노즈아트들도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마치 낙서하듯이 성의없게 그려진 듯 보이거나 미숙한 작풍도 있고, 상당히 뛰어난 그림솜씨를 가진 사람이 그렸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게 그려졌던 것들도 많다. 노즈아트는 주로 손쉽게 붓으로 직접 그리거나 마스킹 기법 등에 의해 그려진 것들이 많았고,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여 섬세한 묘사를 한 것도



핀업-포스터를 보고 기수에 여인을 그려넣고 있는 병사 아티스트

있었으며 드물게는 연인의 사진이나 편엽-포스터 등에서 오려낸 여체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놓은 기체도 존재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각의 그림들은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 그려 넣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려지는 곳이 화폭이 아닌 군용기였으므로 전투시 손실되어 현재는 사진으로서만 접해볼 수 있는 노즈아트들도 상당히 많다.

현재 사진이 아닌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노즈아트는 설사 2차대전기 등의 구식 항공기에 그려져 있는 것들일지라도 대부분 복원된 항공기에 새로이 그려넣어진 것들이며 당시의 것이 보존되어온 것들은 그 수가 드물다.

따라서 비록 당시의 사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나타내는 노즈아트를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복원시에는 주로 비행기 소유주가 40년대 화풍의 노즈아트를 공들여 그려넣기도 하는데, 2차대전 당시의 기록사진 등에서 차용해 온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데 주력했다.

## 왜 기수(nose)에 그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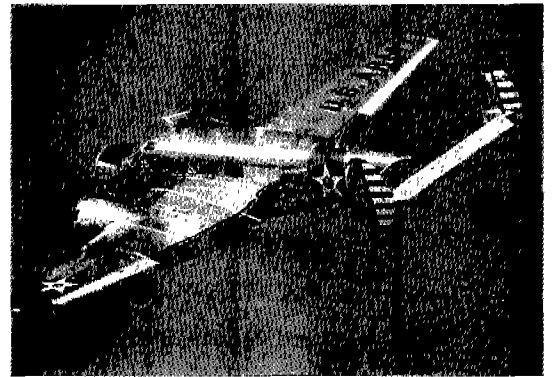
기수의 주로 그려지게 된 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2차대전기의 항공기를 예로 들어보면, 제식도장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 기체 전면에 칠해지는 위장도색외에 동체 뒷부분에는 국적표지와 소속부대 및 계급 등을 나타내는 코드가 표시된다. 그리고 때로는 동체 뒷부분, 주날개 등의 다양한 위치에 특정색을 칠하여 해당 항공기가 작전중인 지역을 나타내는 전구 식별표지가 표시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표시 등이 도장되므로 비교적 노즈아트를 그려 넣을 공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부분은 기수나 동체 중간부분, 수직꼬리날개 뿐이었다. 그중에서 주로 기수에 그려지게 되고 이를 노즈아트라고 한다.



### Heavenly Body- Beech AT-11 Kansan

Heavenly Body라는 애칭의 이 AT-11은 2차대전 당시 미 육군항공대에서 폭격기 승무원 중 폭격수 및 사수의 훈련용으로 사용되었던 훈련기이다. Heavenly Body는 태양, 달, 별 등의 천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 Goodtime Gal- Lockheed C-56/59

페인필드라 불리는 애버렛의 보잉사 소재 비행장에 전시된 록히드 C-56/59는 육군항공대에서 운용되었다(Gal은 Girl의 속어이다).



### Pacific Princess- North American TB-25N Mitchell

TB-25N Pacific Princess는 태평양전쟁 참가 노병 파일럿들의 회고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전시된 것이다.

